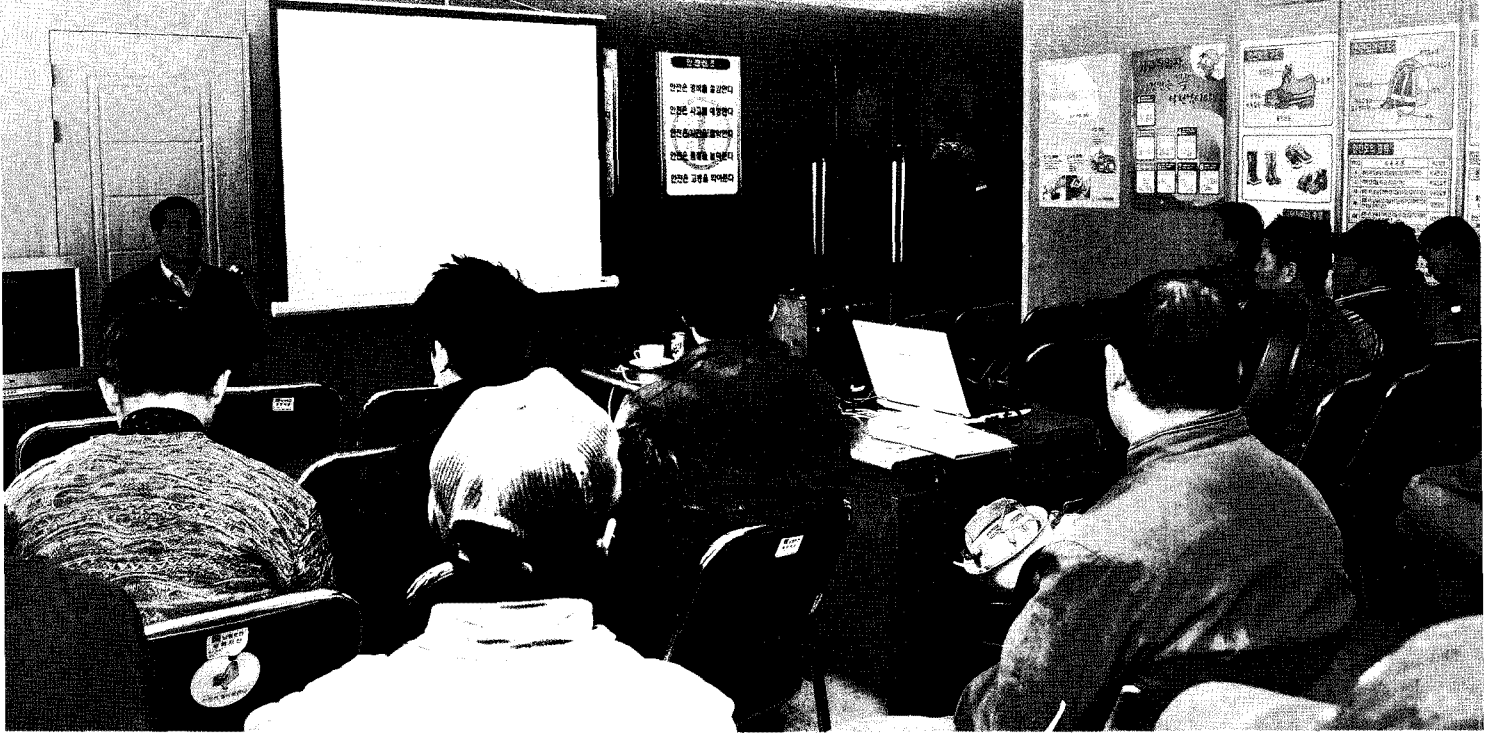


‘안전은 생명존중, 사고는 가정붕괴’



취재 | 연승기 기자 · 취재지원 :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남광토건(주)

공무원을 꿈꾸던 청년은 잠시 책을 놓고 건설현장을 찾았다.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기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대학 공부를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것만도 힘겨웠을 집에 더는 기댈 수도 없었다. 노동과 공부를 함께 한다는 것이 버겁기도 했지만 먼 훗날 공직에 앉아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청년은 견뎌냈다. 하지만 청년의 이런 꿈은 얼마못가 산산이 부서졌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다신 걸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이다. 1990년 10월10일 권의석(48) 본부장이 스물여덟 살 때의 일이다.

공무원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 돼

책만 읽을 줄 알던 청년이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저 벽돌과 시멘트를 운반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청년은 벽돌 등의 건축자재를 필요한 곳으로 날리다 주고 있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날은 윈치(공사현장 내 임시 화물용 승강기의 일종)를 타고 7층 높이의 현장에다 벽돌을 갖다 놓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참 윈치 안의 벽돌을 나르던 그 때 갑자기 그를 태운 윈치가 밑으로 떨어졌다. 다급히 윈치 기사가 멈춰 세웠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다. 연속된 급추락과 급제동 속 청년은 윈치 안에서 벽돌과 뒤엉키며 나뒹굴었다. 온 몸 곳곳에 난 상처도 심각했지만 정작 큰 문제는 사고 후 청년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동료 근로자들은 급히 화물차에 청년을 싣고 인근 병원을 향해 달렸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그는 평생 지을 수 없는 말을 들어야 했다. “요추 2번 압박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입니다” 의사는 검사 시트를 보며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응급조치만 잘 받았어도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현장내 응급조치교육 강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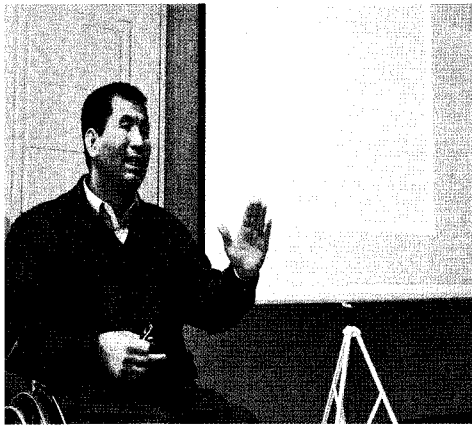
어서 빨리 자리를 잡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판에 사고를 입고 평생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다니 청년은 암담한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장의 부실한 안전체계에 대한 원망도 컸지만 퇴근시간이 다가왔다고 해이한 상태로 근무를 하다 윈치를 오작동한 윈치 운전기사에 대한 미움도 지을 수 없었다. 특히 허리를 다친 환자를 건축폐자재들이 실린 화물차에 싣고 후송하는 현장내 허술한 구급조치에 대한 분노에 청년



권익석 씨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대전지역본부장

행복한 세상 만들고 싶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치 않은 몸을 가지고 산재예방활동까지 하냐고 걱정하듯 말합니다. 저는 이 일을 고통을 참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몸이라도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또 이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 동시에 저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세상이 조성돼야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은 온 몸을 떨어야만 했다.

권 본부장은 “당시 저는 화물차에 구겨지듯이 실려 병원에 갔었습니다. 체계적인 응급조치가 사고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아 이송 중 부상이 악화되면서 2차 부상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현장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2차 장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현장 돌며 안전강연 펼쳐

권 본부장은 사고로 인한 고통을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생각처럼 4년여의 병원생활이 흘러가며 그의 마음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갔다.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은 체념으로 변화했고 장애인이 된 자신을 인정하게 됐다.

이후 그는 장애인이라는 입장에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상은 휠체어 탁구였다. 시작은 취미였으나 점차 탁구는 그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 주었다.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세우고 피나는 연습을 거듭한 결과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은메달도 딸 수 있었다. 두 번째 목표로 삼은 것은 산재예방활동이었다.

행복했던 근로자들이 한 순간의 사고로 자신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주변 산재근로자들에게도 공감을 샀고 2002년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한국산재노동자협회를 설립했다. 이후 권 본부장은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을 다니며 안전강연을 펼쳤다.

권 본부장의 마지막 목표는 ‘안전은 생명존중, 사고는 가정붕괴’라는 진리를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 외우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런 열정이 전국 현장 곳곳에 퍼져 무재해 한국이 어서 빨리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